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4)

김 태 곤*

목 차

- I. 序 言
- II. 語形 消滅型
- III. 語形 分化型
- IV. 語形 變化型
- V. 語形 維持型
- VI. 結 論

I. 序 言

세상 만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는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의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논문에서는 15세기에 쓰였던 국어 어휘가 그 이후에 어떻게 변천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으로 前篇¹⁾에 이은 後續研究이다.

단어의 변화는 그 양상도 여러 가지인데 語形이 변하는 것, 의미가 변하는 것, 그리고 이들 모두가 변하는 것 등이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겉으로 보아 알 수 있는 語形에 기준을 두어, ① 語形이 소멸된 것, ② 語形이 分化된 것, ③ 語形이 변화된 것, ④ 語形이 유지된 것으로 나누어 語形이나 의미의 변화과정을 문헌에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제주대 교수

- 1) 金泰琨(1994),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1)," 『白鹿語文』10, 제주대 국어교육학회.
- _____ (1995),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2)," 『語文研究』8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_____ (1996),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3)," 『白鹿語文』12, 백록어문학회.

이런 유형에 따른 어휘를 선정하여 考究하였는데, 語形이 소멸된 것으로 '너름(짓다)'를, 語形이 分化된 것으로 '바당, 싫다'를, 語形이 변화한 것으로 '스모다, 사오납다, 암굴다'를, 語形이 유지된 것으로 '얼굴, 여위다'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고에서 인용된 用例의 문헌과 그것의 略號는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家諺>	家禮諺解	1632
<警民>	警民編(改刊本)	1658
<敬釋>	敬信錄諺解	1796
<過化>	過化存神	1880
<救簡>	救急簡易方	1489
<救方>	救急方諺解	1466
<國漢>	國漢會語	1895
<金三>	金剛經三家解	1482
<南宮>	南宮桂籍	1876
<南明>	南明集諺解	1482
<內>	內訓	1475
<老諺>	老乞大諺解	1670
<楞>	楞嚴經諺解	1462
<同文>	同文類解	1748
<東韓>	東韓譯語	1789
<痘經>	痘瘡經驗方	顯宗朝
<痘要>	諺解痘瘡集要	1608
<杜重>	分類杜工部詩諺解 重刊本	1632
<杜初>	分類杜工部詩諺解 初刊本	1481
<馬諺>	馬經抄集諺解	仁祖朝
<明義>	明義錄諺解	1777
<蒙老>	蒙語老乞大	1741
<蒙補>	蒙語類解補	1790
<蒙解>	蒙語類解	1768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4)

<無冤>	增修無冤錄諺解	1792
<朴新>	朴通事新釋諺解	1765
<朴諺>	朴通事諺解	1677
<方言>	方言類釋	1778
<魏老>	魏譯老乞大	16세기초
<魏朴>	魏譯朴通事	16세기초
<魏小>	魏譯小學	1517
<法華>	法華經諺解	1463
<三聖>	三聖訓經	1880
<釋>	釋譜詳節	1447
<石千>	石峰千字文	1583
<續三>	續三綱行實圖 重刊本	17세기초
<新續>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
<十九>	十九史略諺解	1772
<女四>	女四書諺解	1736
<譯補>	譯語類解補	1775
<譯解>	譯語類解	1690
<倭解>	倭語類解	18세기
<牛方>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重刊本	1636
<圓>	圓覺經諺解	1465
<月釋>	月印釋譜	1459
<月千>	月印千江之曲	1447
<類合>	新增類合	1576
<六祖>	六祖法寶壇經諺解	中宗朝
<綸音>	綸音諺解	正祖朝
<恩重>	恩重經(南高寺本)	1741
<二倫>	二倫行實圖	1518
<隣語>	隣語大方	正祖朝
<日東>	日東壯遊歌	1764

<煮硝>	新傳煮硝方諺解	1796
<正俗>	正俗諺解(奎章閣本)	17세기
<正俗>	正俗諺解(一蓑文庫本)	18세기말
<寵君>	寵君靈蹟誌	1881
<種德>	種德新編諺解	1758
<重老>	重刊老乞大諺解	1795
<胎産>	諺解胎産集要	1608
<太上>	太上感應篇圖說諺解	1852
<訓蒙>	訓蒙字會	1527
<訓諺>	訓民正音 諺解本	1459

II. 語形 消滅型

□ 녀름(짓다)

단어 '녀름'은 중세국어에서는 '農事' 또는 '農産物'을 가리키고, 이 말과 同音異義語로 '夏'를 의미하는 '녀름'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중세국어에서 사용된 '녀름'의 용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農事

녀름 도홀 풍 : 豊(訓蒙 下19)
 時節이 便安호고 녀르미 드외며(月釋 序25)

② 農産物

沙門은 늬미 지순 녀르물 먹느니라(釋24:22)

그러나 '녀름'은 동사 '짓다'와 결합하여 합성동사 '녀름짓다'가 주로 쓰였으며, 동사 '드외다'와 결합하여 '녀름드외다'도 쓰였다. 용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녀름짓다(농사짓다)

녀름짓는 사르미라(月釋10:21)

녀름지서(農事)(杜初8:48)

녀름지슬 농 : 農(訓蒙 中3)

○ 녀름드외다(농사되다, 풍년들다)

歲有는 녀름드일씨라(月釋 序25)

釋種이 못 盛하니 녀름드외오(月釋2:11)

‘녀름짓다’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쓰였는데 18세기까지 쓰인 것으로 보인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질박한 너런 녀름지이고(資朴實者歸於農)(正俗8)(奎章閣本)

실흔 잘난 녀름지을 고대 도라 보내며(實者歸於農)(正俗13)(一蓑文庫本)

팍편이 손조 녀름지어 머기며 (全窮耕以養)(二倫24)(重刊本)

죄인을 노하 보내여 녀름지이를 하게 하라(種德 中9)

그러나 19세기 말의 문헌인 <國漢會語>에서는 ‘녀름’이 ‘夏’의 의미로는 실려 있으나 ‘농사’의 의미로는 실려 있지 않고, 대신에 한자어로 교체하여 다음 예와 같이 쓰이고 있다.

농사(農事) 농부(農夫) (423쪽)

이것으로 볼 때 19세기에는 ‘녀름짓다’는 소멸되고, 대신 한자어가 광범위하게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 것은 ‘녀름’이 뜻에 따라 ‘녀름짓다, 녀름드외다, 녀름지슬이, ……」 등과 같이 복잡하게 단어형성이 되는 것에 비하여, 한자는 造語力이 발달되어 있어 간편하게 여러 단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유어가 사라지고 한자어가 자리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용례를 보면 알 수 있다.

農家, 農軍, 農器, 農幕, 農民, 農夫, 農事, 農商工部, 農牛, 農節, 農酒, ……

(이상, 國漢會語, 423 ~ 424쪽)

이 '너름(짓다)'의 변천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너름(짓다)(15세기) > 農事(짓다)(19세기)

Ⅲ. 語形 分化型

1. 바당

단어 '바당'은 중세국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로 쓰였다.²⁾

① 手掌, 足掌

合掌은 손바당 마찰씨라(月釋2:29)

밧바당 가은디(教方 下82)

② 바닥(底面)

큰 빗바다르로 괴여 허니는다(月釋1:15)

며트릿 바당울(麻鞋履底)(教簡6:61)

③ 場所, 자리

모미 못도록 是非스 바당과 喜惡스 境에(終身處乎是非之場喜惡之境)(法華1:222)

위의 예 ①의 '바당'은 '손바당, 밧바당'과 같이 합성어를 이루어 쓰이고 있는데 이는 현대국어에서 '손바닥, 밧바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위의 예 ③에서 쓰인 '바당'은 15세기에 벌써 '場所'의 의미로 '바탕'이란 語形이 대체되어 쓰였고, 이는 16세기에도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15세기 용례>

노니는 바탕이니라(遊戲之場)(金三2:19)

2) 이 '바당'은 '밭(場)'에서 파생된 것으로 '평평함'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姜成一(1975), 『國語學論考』, 發雪出版社, p.181.

<16세기 용례>

바탕 당 : 場(類合 下39)

다음에는 17세기에 語形 '바탕'이 어떻게 쓰였는가 살펴본다.

① 手掌, 足掌

두 태양혈과 두 발 바탕의 브티라(貼兩太陽穴及兩足心)(痘要 下54)

손바닥을(手心上)(朴諺 上45)

바탕뼈 높고(掌骨高)(馬諺 上4)

② 바닥(低面)

마른 신바닥을 구어(乾履底灸)(馬諺 下10)

또 신바닥으로 꼬리 브튼 뼈 아래를 티라(更用鞋底於尾俸骨下拍之)(牛方13)

③ 타고난 體質

누루기 게빛 바탕 ㄱ튼니는 살고(黃如蟹腹者生)(馬諺 上28)

이와 같이 17세기 국어에서는 語形 '바탕'에 '타고난 體質'이라는 의미가 더 첨가하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 국어에서 語形 '바탕'은 변화를 겪는데 의미에 따라 語形이 '바닥'과 '바탕'으로 나뉘어 쓰이고 있다. 즉 위의 17세기의 예 ①②의 의미는 '바닥'이란 語形으로 쓰이고,

손바닥 장 : 掌(國漢 228쪽)

계 손생다오로 계 알골 처(龜君15)

③의 의미는 '바탕'이란 語形으로 쓰이고 있다.

바탕 질 : 質(國漢 42쪽)

한편, 중세국어에서 '場所, 자리'의 의미로 쓰였던 語形 '바탕'은 18세기 국어에서 '마당'이라는 語形이 그 의미를 맡고 있다.³⁾

3) 이 '마당'은 15세기 국어 '밭'(場)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평평함'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마당(打麥場)(譯補42)
마당(打糧場)(同文 下1)

지금까지 기술한 것을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바당(手掌, 足掌, 底面, 場所, 자리)(15세기)
 - > 바당(手掌, 足掌, 底面)(17세기) > 바닥(19세기)
 - > " (타고난 體質)(17세기) > 바당(質)(19세기)
- 바당(場所)(15,6세기) > 마당(場)(18세기)

위를 설명하면, 15세기의 '바당'은 '① 掌, ② 底面, ③ 場所'의 뜻이 있었는데 이 중 ① ②의 의미는 18세기까지 語形 '바당'이 유지되고, 19세기에는 語形이 '바닥'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③ 場所의 의미는 語形이 '바탕'으로도 15, 6세기에 쓰이다가 18세기에는 語形이 '마당'으로 쓰였는데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17세기 국어에서 語形 '바당'에 쓰인 '타고난 體質'의 의미는 19세기 국어에서 '바탕'이란 語形으로 쓰이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 싫다

중세국어에 '싫다'가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가를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① 苦痛스럽다

痛은 설볼씨라(月釋 序10)

비록 ㅁ장 설워도 혼 時刻을 츠즈면 즉재 알팍디 아닌느니라(雖極痛強忍一時即不痛)(教方 下14)

惱는 ㅁ슴 설볼씨오(月釋2 : 22之1)

과골이 허리 알파 ㅁ장 설워 니러 안찌 묻허거든(卒腰痛至甚起坐不得)(教簡2 : 43)

② 애통하다, 싫다(慟)

설워 울오져 ㅎ다가 (欲慟哭)(杜初8 : 59)

설본 人生이 어뎃던 이 ㅁ튼니 이시리잇고(釋6 : 5)

長常 그리스바 설버 허더니(釋6 : 44)

③ 섭섭하다(惜)

선 닛돈에 혼 섭식하면 또 아니 내게 설우너(五十箇銅錢一擔時却不虧着我)(翻朴上12)

다하 내게 설웨라(還虧着我了)(翻老 下13)

이처럼 중세국어에서 '섭다'는 육체적인 아픔을 나타내는 의미 외에 정신적인 괴로움, 애통함, 섭섭함 등을 나타내는 多義語였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의 '섭다'는 현대국어 '섭다' 또는 '서럽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구별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17,8세기 국어에서는 이 말이 어떠했는가 살펴보자.

<섭다>

① 섭섭하다, 서운하다

내게 설웨라(虧着我了)(老諺 下11)

네 이 갓흔 구의 銀을 바드면 네게 섭다(蒙老8 : 8)

② 고통스럽다

섭다(苦啊)(蒙解 下7)

<설위하다>

① 고통스러워하다

아비 종괴을 내어 2장 설위허거늘(父嘗腫甚苦)(續三 孝21)(重刊本)

② 슬퍼하다, 애통해 하다

울고 음식을 아니 먹고 죽으니 들은 사람이 다 설위허더라(不食而死聞者莫不傷痛)(續三 孝32)(重刊本)

낮밤을 설위허더니(日夜哀慟)(新續 孝1 : 31)

위의 용례를 보면 語形이 '섭다'와 함께 '설위하다'가 파생하여 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의미는 중세국어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 19세기 말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설마(悲愴)(國漢 224쪽)
서러하다(悲)(國漢 535쪽)

이와 같이 語形이 '설마'와 '서러하다'로 표기되었는데 형태소를 밝혀 적지 않고 발음나는 대로 적은 것인데 어법에 맞지 않다. 그런데 의미는 前代에 비해 축소되어 '애통하다'의 뜻으로만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총독부편 <朝鮮語辭典>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다음과 같다.

설스다 : 悲じ.
설어하다 : 悲じみ.

또 文世榮편 <朝鮮語辭典>(1938)에서도 '서러하다'를 그대로 답습하여 설어 놓았고, 다만 이전의 '설마, 설스다'는 '설다'로 표기하여 전통적인 표기법을 따랐다. 그러나 이 말의 뜻풀이가 다음과 같이 '서럽다'의 준말로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풀이다.

서럽다 : (形) 슬픈 생각이 나다.
설다 : (形) 「서럽다」의 준말.
서러하다 : (他) 슬퍼하다. 원통하게 생각하다.

사실 '서럽다'는 '설다'의 파생어이다. 다행히 위에서와 같은 잘못된 풀이는 現用 국어사전에서는 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바르게 풀이하여 놓았다.

설다 : (形) 원통하고 슬프다.
서럽다 : (形) '설다'의 변한 말.
서러워하다 : (自,他) '설워하다'의 변한 말.
설워하다 : (自) 서럽게 여기다.

<새 우리말 큰사전>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설다(苦痛, 哀痛, 惜)(15세기)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4)

- > ① 앓다(惜)(17세기) > 앓다(哀痛)(19세기) > 앓다(哀痛)(1938년)
> 서럽다(哀痛)(1938년)
- > ② 설위하다(苦痛, 哀痛)(17세기) > 서러하다(哀痛)(19세기) > 서러하다(1938년)
> 서러워하다(哀痛)(現)

IV. 語形 變化型

1. 스몏다

중세국어에 이 말의 語形 표기는 원래 ‘스몏다’이나 八終聲用法에 의해 子音 앞에서 ‘스몏-’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의 어간이 당시에 ‘스몏’으로 표기하여 부사로도 쓰였다.

이 ‘스몏다’는 중세국어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다음 용례와 같다.

① 疏通되다, 通하다

文字와로 서르 스몏다 아니홀씨(訓諺)

집마다 길히 長安에 스몏도다(家家有路透長安)(金三4 : 97)

스몏출 통 : 通(石千20)

② 뻔치다

世界를 자바 가져 히미 스몏차 저픈 거시 업서(釋13 : 10)

더운 귀우니 안팎피 스몏차면 죽재 살리니(暖氣內外透徹卽活)(教簡1 : 66)

한 光이 東너그로 비취샤 두루 스몏차 두러이 現ᄃ샤미(一光東照周巨圓現)(法1 :

64)

③ 到達하다

브터 보내는 書信이 당상 스몏다 묻거늘(寄書長不達)(杜初8 : 36)

길히 멀어니 엇데 스몏초물 得ᄃ리오(路遙如何得達)(六祖 上94)

스몏출 달 : 達(石千20)

④ 通達하다, 精通하다

通達은 스몏출씨라(釋13 : 4)

了義는 決斷하야 스므촌 브디니 大乘敎를 니르니라(月釋 序15)
萬法の 기픈 根原을 스므게 코져 바라노니(疏達萬法之沈原)(月釋 序21)

⑤ 새다(漏)

金瘡의 피 안으로 스므차 얼인 피 비 안해 이셔(金瘡內漏瘀血在腹中)(敎方 上85)
瓶스 이플 스의 마가 氣分이 스므디 아니케 호고(密封瓶口勿令泄氣)(敎方 上95)

이와 같이 語形 '스므다'가 중세국어에 ① 疏通되다 ② 뻘치다 ③ 到達하다 ④ 精通하다, 精通하다 ⑤ 새다(漏)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이는 현대국어 '사 무치다'라는 語形과 큰 의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4)

다음에 이 말이 17세기 국어에서 나타나는 용례를 아래와 같이 보인다.

① 通하다, 貫通하다

남글 뚫디 아니면 스므디 아닌는다 호니라(木不鑽不透)(朴諺 上14)
ㄹ르민 神女館으로 스므쳐 흐르고(江通神女館)(杜重3 : 36)

② 到達하다

브려 보내는 書信이 당상 스므디 못거닐(寄書長不達)(杜重8 : 37)
네 妻子를 마자 荊州에 스므차 오니(汝迎妻子達荊州)(杜重8 : 41)

③ (밤이) 새다

바미 스므도록 눈 우희 안갓다가(達夜坐於雪上)(新續 烈3 : 21)

이와 같이 17세기 국어에서는 語形 '스므다'가 ① 通하다, 貫通하다 ② 到達하다 ③ (밤이) 새다 등의 의미로 쓰인 것이 발견되는데 아직 중세국어에서 쓰였던 '뻘치다, 精通하다, 새다(漏)'의 뜻은 未見이다.

18세기 국어에서 나타나는 '스므다'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① 貫通하다

말을 니르디 아니면 불디 못호고 남글 쏘디 아니면 스므디 못훈다 호니라(話不說不

4) 全在昊(1987), 『國語語彙史 研究』, 경북대 출판부, pp.102~106.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4)

明木不鑽不透)(朴新1: 16)

슈미산날 빅천번 도라 엇게뻬 스므차도(穿至隨逸須彌山經百千)(恩重18)(南高寺本)

② 뻬치다

설움이 간당의 스뫼논도다(痛苦徹心腸)(恩重7)(南高寺本)

블로 술와 불귀운으로 히어곰 스므차 속에 들게 히면(以火燒之令火氣透入裏面)(煮確4)

③ 通達하다

우흐로 사뫼출 근본을 사물 거시니라(敬釋45)

18세기에는 제1음절에서도 ·音의 非音韻化가 이루어졌는데 위의 예 ③에서 종전의 '스뫼다'가 '사뫼다'로 표기된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중세국어와 같이 18세기에서도 위의 예 ②에서처럼 語形 '스뫼다'가 '뻬치다'의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18세기에 語形 '뻬치다'가 나타나 이러한 의미로 다음 용례와 같이 쓰이기도 했는데 이 말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가히 그 창조의 뻬치고 비에 그득흠이(明義2: 21)

語形 '스뫼다'는 19세기 국어에서는 語形도 바뀌어 '스뫼치다'로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우회로 하늘에 스뫼치니(上格蒼穹)(南宮5)(三聖10)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語形이 '사뫼치다'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사뫼칠 달 : 達(國漢 50쪽)

20세기 초에 나온 총독부편 <朝鮮語辭典>에는,

사뫼치다 : (活) 達す(希望等に いふ)

로 표기되고, 이 말이 文世榮편 <朝鮮語辭典>(1938)에는 지금과 같은 표기인 '사뫼치다'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이는 모음교체가 된 것이다.

사무치다 : (自) 닿다. 이르다. 통하다.

이 말에 대한 文世榮編 <朝鮮語辭典>에 나타난 풀이는 중세국어에 나타난 것과 즐기는 갈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現用 국어사전에는,

사무치다 : (自) 속 깊이 스며들거나 멀리까지 미치어 통한다. <새 우리말 큰사전>

와 같이 풀이되어 있는데 주로, ○ 원한이 뼈에 사무치다. ○ 그 일이 마음 속 깊이 사무치다. 등과 같은 예에서 이 말이 사용된다. 그래서 중세국어와는 이 말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즉 현대국어에서는 이 말이 주로 정신적 감정의 면에 사용되는데 비하여, 중세국어에서는 ‘길이 통하다. 서신이 도달하다.’ 등과 같이 물질적인 면에서도 쓰여 더 광범위한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스뭇다’에 대해 고찰한 바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데, 語形과 의미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스뭇다(通하다, 뵈치다, 到達하다, 通達하다, 새다)(15세기) > 사뭇다(18세기 말) > 사뭇치다, 사모치다(達)(19세기) > 사무치다(達, 通)(1938) > 사무치다(속 깊이 또는 끝까지 미치어 통하다)(現)

2. 사오납다

중세국어의 단어 ‘사오납다’는 현대국어 ‘사납다’와 비교할 때 많은 의미 차이를 볼 수 있다. 중세국어의 문헌을 살펴보면 ‘사오납다’라는 단어가 빈번히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의미도 여러 가지로 다음 용례와 같이 나타난다.

① 劣等하다, 劣惡하다

도흐며 사오나오문란 아직 들디어니와(優劣且亂)(金三1 : 宗序4)

쁘디 노갑고 사오나올시(志意下劣)(金三3 : 25)

병후야 자리에 누엇거든 사오나온 의원의게 맞더두물(病臥於床委之庸醫)(麟小7 : 5)

② 弱하다

미기 사오나와 ㄹ장 허약한(脉弱大段虛怯)(救簡 1 : 39)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4)

사오나은 사툼 곤더라(如懦夫然)(內訓1: 36)
祛야 사오나음 업슬식(無怯弱故)(圓 下一之二32)

③ 거칠다

百年에 사오나은 바분 서근 선비 먹는 거시로다(百年羸羸腐儒餐)(杜初22: 5)
사오나은 밭티 열다엿 頃이(薄田十五頃)(麟小8: 20)
밭과 집과를 사오나오니와 기우러디니를 가지며(田廬取其荒頃者)(麟小9: 23)

④ 頽弊하다

차흠다 風俗의 사오나이 도이유미(嗟乎風俗頽弊)(麟小10: 33)

⑤ 나쁘다

이 도흐니 사오나오니(這好的歹的)(麟老 下8)
도흔 일 지스면 도흔 몸 득외오 사오나쁜일 지스면 사오나쁜 몸 득외요미 業果이라
(月釋1: 37)

⑥ 崎嶇하다

네로브터 聖賢은 命 사오나오니 하고(自古聖賢多薄命)(杜初25: 42)

⑦ 어리석다(愚)

어덜며 사오나오매 羽儀드일 썩툼 아니라(不止賢愚作羽儀)(南明 下3)
그 사툼이 어덜어나 사오납거나 뚱에(其人賢愚)(麟小9: 11)

⑧ 拙하다

가난한 물근 사오나은 郎君이 (窮寒清苦拙郎君)(金三5: 5)
大小巧拙이 다르니(拙은 사오나불씨라)(月釋14: 68)
優는 더을씨라 劣은 사오나불씨라(月釋17: 57)

⑨ 薄하다

내 이제 늘거 才力이 사오나오니(我今衰老才力薄)(杜初16: 16)
사오나은 벼슬로 風塵 서리에 든돏다(薄宦走風塵)(杜初23: 49)

⑩ 疏漏하다

政術 사오나오몰 돌히 너기고(政術甘疎)(杜初20: 25)

① 凡하다

사오나온 材質로 省郎을 더러유라(凡材汙省郎)(杜初8 : 44)

이상의 용례를 볼 때 중세국어에 ‘사오납다’와 대응하고 있는 한자는, 劣 弱 曠 荒 頽 弊 歹 薄 愚 拙 凡 疏(疎) 庸 懦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중세국어에 ‘사오납다’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의미는 ‘ 좋지 못함’(不良)이다. 그런데 위의 예를 보면 ‘猛’의 뜻으로 쓰인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는 달리 ‘猛’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 17세기에는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펴보자.

① 惡하다

그 사오나오물 버리고 어딜물 즐기예(其去惡從善)(警民 序2)(改刊本)
사오나오므로써 어딘이롤 업쇼이 너기다 말며(無以惡陵善)(警民20)(改刊本)

② 거칠다(疏)

사오나온 밥이며 물을 마시고(疏食水飲)(家諺9 : 10)
사오나온 밥 먹고(疏食)(新續 孝2 : 39)

③ (냄새가) 지독하다, 고약하다

고기 석어 사오나온 내가(腐敗惡臭)(痘經12)
비사람이 내의 사오납기로써 말려 허더니(舟人以臭惡爲辭)(新續 烈8 : 55)

④ (품질이) 粗惡하다

사오나온 이는 언머 싸세 풀다(低的多少價錢賣)(老諺 下53)

⑤ 瘠薄하다

사오나온 밧과 늘근 풍을(嶠薄老衰者)(續三 孝22)(重刊本)

⑥ 허름하다

오술 사오나이 허리도 계시며(惡衣服者)(正俗25)(奎章閣本)

⑦ (재주 등이) 변변치 못하다

사오나온 지조 퍼몰(薄才伸)(杜重19 : 12)
 사오나온 뭉 얼굴을 분변흐는 법이라(辨驚馬形狀法)(馬諺 上6)

⑧ (몸, 건강 등이) 나쁘다, 심하다

지아비 사오나온 병을 어덜거늘(夫得惡疾)(新續 烈2 : 32)
 신장은 비록 증이 업스나 사오나오니는 변식하야(腎雖無證其候惡者瘡變)(痘要 上2)

⑨ 凶하다(좋지 못하다)

도한 희에는 죽도록 비브르고 사오나온 희에도 주구를 면흐느니(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正俗 21)(奎章閣本)

이와 같이 17세기에도 '사오납다'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중세국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의 공통된 의미는 역시 '좋지 못함'(不良)이다. 또한 이 말이 중세국어와 같이 '猛'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이 말이 18세기에는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펴보자.

① 나쁘다(惡)

네 음흉하고 사오나온 줄을 아랏고(明義1 : 65)
 사오나오미 이셔도 스양티 말아(有惡莫辭)(女四1 : 3)
 사오나오니 열여섯시 이시니(有歹的十六箇)(重老 下9)

② 사납다(猛)

이 뭉이 엇지 이리 잡기 어려오뇨 …… 이뭉 이리 사오나오면(既這般利害麼)(重老 上42)
 네 집 이 개 쏘 사오나오니(你家這狗又利害)(重老 上50)
 므슴하라 사오나온 사름이 잇느뇨(爲其麼有歹人)(重老 上24)
 사오나와 소리흐다(咆哮)(方言4 : 14)
 엇지하야 사오나온 사름이 잇느뇨(蒙老2 : 10)
 부리 사오납다(嘴毒)(蒙補14)
 사오나음을 부려 나를 터세라(逞強打我來)(朴新3 : 51)

③ (品質이) 粗惡하다

이 胸背스 비단은 蘇州셔 난 사오나온 비단이라(蒙老6 : 9)

이 활을 닳候도이 사오납다 하니(蒙老6 : 13)

④ 瘠薄하다

사오나온 밧(薄田)(方言3 : 23)

⑤ 衰하다

부모 나히 늘거 양지 사오나이 되면(父母年邁形貌衰)(恩重15)(南高寺本)

⑥ (비바람이) 매우 심하다

風潮 | 사오납스와 絶影島外洋의 浮溜하여(隣語5 : 20)

뚝 돌고 나아가니 사오납고 거스려 갈 길히 전혀 업서(日東2 : 10)

18세기 국어에서도 '사오납다'가 '좋지 못함'(不良)의 뜻으로 폭넓게 사용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猛'의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前代와 다르다. 또 위의 예 ⑥과 같이 '비바람 등이 사납다.'의 뜻으로도 쓰인 점이 전과는 다르다.

다음, 19세기에는 '사오납다'가 現代國語 '사납다'와 같이 '猛'의 뜻으로 주로 쓰였고, 표기도 '스오납다'로도 나타난다. 다음 용례를 보자.

① 猛

스오나온 일을 행하며(行虐)(過化12)

스오나음을 부려 인물을 살상하며(縱暴殺傷)(太上 大文解6)

스오납고 각박하며 잔인하고 혹독하여(暴刻殘酷)(太上2 : 12)

스오나온 티와 슈뢰(鷹鷄)(太上5 : 55)

니희렬이 스오납고 강악하니(希烈悍惡)(太上4 : 4)

② 惡하다

극히 사오나온 사롬도(極惡之人)(太上2 : 50)

19세기 말에는 語形도 변화가 생겨 '사납다'로 음절이 단축되어 쓰였는데 이는 현대국어와 같은 모습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사나올 포 : 暴

사나올 학 : 虐

사나울 땡 : 猛
사나울 걸 : 桀(이상, 國漢 48쪽)

한편 20세기 초에 나온 총독부편 <朝鮮語辭典>(1920)에는 이 말의 의미가 '猛惡'으로 되어 있고,

사나올다 : 猛惡なり.
사납다 : '사나올다'에 同じ.

文世榮편 <朝鮮語辭典>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풀이되어 있다.

사나올다 : '사납다'와 같음.
사납다 : ① 용맹이 있다. ② 마음이 굳세다. ③ 성질이 맹렬하다.
④ 거칠다. ⑤ 마음씨가 언짢다.

그리고, 現用되는 <새 우리말 큰사전>에는

사납다 : (형) [성질이나 행동 또는 생김새가] 모질고 억세다.

와 같이 풀이되어 있어 이 말이 단순화된 의미로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사오납다(劣等하다, 약하다, 거칠다, 頽弊하다, 나쁘다, 崎嶇하다, 어리석다, 拙하다, 薄하다, 疏漏하다, 凡하다(중세국어) > 사오납다(나쁘다, 사납다, 粗惡하다, 瘠薄하다, 衰하다, 비바람이 심하다)(18세기) > (스)오납다(猛, 惡)(19세기) > 사납다(猛)(19세기 말)

3. 암골다

중세국어에 '암골다'는 현대국어 '아몰다'와는 다르게 사용되었는데 다음 용례를 보면 알 수 있다.

① 癒合하다

헌 더 오래 암궤다 아니흐며(瘡永不合)(敎方 下1)
갈해 헌 짜홀 旆檀香 비르면 즉자히 암궤느니라(月釋1 : 27)
五百 사르미 法 듣좁고 깃거흐니 모미 암궤오(月釋10 : 31)

② 께매지다

往生偈르 외오시면 헌 오시 암궤며 골푼 비도 브르리이다(月釋8 : 83)
이 偈를 외오시면 골푼 비도 브르며 헌 웃도 암궤리이다(月釋8 : 95)

③ 온전하다, 완전하다

道器 암궤다 아니흐면 道果ㅣ ㅁ춤내 시리라(道器不完道果終漏)(楞6 : 106)
몸 우회 암근 술과 갓괘 잇디 아니토타(身上無有完肌膚)(杜初8 : 2)

이와 같이 語形 ‘암궤다’가 중세국어에서 세 가지 의미로 쓰여 다의어인데, 이의 현대국어의 語形 ‘아물다’는 ‘癒合’의 의미로만 쓰이기 때문에 語形과 의미면에서 차이가 난다.

17세기에도 다음과 같이 중세국어와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① 癒合하다

혹 좃믈러 더러운 내 나고 우묵하야 암궤다 아니커든(或臭爛深坑不收口並)(痘要 下13)
내 올제 다 도하 암궤터라(我來時都完痊癒了)(老諺 下4)

② 께매지다

또 드나드로매 암몬 궤외도 업스니라(出入無完裙)(杜重4 : 8)
農器는 오히려 아ㅁ라 구덧도다(農器尙牢固)(杜重1 : 49)

③ 완전하다

몸 우회 암근 술과 갓괘 잇디 아니토타(身上無有完肌膚)(杜重8 : 2)

이 시기에는 語形이 ‘암궤다’(위의 예 ①③)와 ‘아물다, 아물다’(위의 예 ②)로 쓰였음을 알 수 있어 語形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18세기에는 語形이 ‘암궤다’는 17세기와 같이 쓰이고, ‘아물다’는 ‘아물다’로 음운

변화를 일으켜 쓰였고 '癒合'의 뜻으로만 나타난다. 다음의 용례를 보자.

암글 전 : 痊(倭解 上51)
뽀은 기 코등이 아물 새 업다(東韓)

20세기 들어 총독부편 <朝鮮語辭典>에는 '암그다'와 '암올다'의 兩形이 실려 있으나 '암올다'의 경우 현실음이 아닌 것 같다. 이의 현실음은 원순모음화로 '아물다'로 발음되었을 것이다.⁵⁾ 이 때도 의미는 '癒合'으로만 나타난다. 文世榮편 <朝鮮語辭典>에도 '암글다'와 '아물다'의 兩形이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다음과 같이 보여 준다.

암글다 : (自) 부스럼, 상처들이 나아서 달라 붙다. 아물다.
아물다 : (自) '암글다'와 같음.

그런데 지금은 語形 '암글다'는 소멸되었는데, 現用 국어사전에도 '암글다'는 옛 말로 처리하고 있다.

아물다 : (자) 부스럼이나 상처가 다 나아서 살가죽이 맞붙다. ×암글다. 암올다. 암글다 <새 우리말 큰사전>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암글다, 암글다(癒合하다, 께매지다, 온전하다)(15세기) > 암글다, 암물다, 아물다(癒合하다, 께매지다, 온전하다)(17세기) > 암글다, 아물다(癒合하다)(18세기) > 암글다, 아물다(癒合하다)(1938년) > 아물다(癒合하다)(現)

V. 語形 維持型

1. 얼굴

15세기 국어에서는 語形 '얼굴'이 지금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쓰였는데 다음 용례를 보면 알 수 있다.

5) 국어사에서 원순모음화는 17세기 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① 形體

象은 양지니 萬象은 一切 얼굴을 다 니르니라(釋19 : 11)
그르메 얼굴을 조차 나느니라(影逐形生)(金三1 : 22)

② 몸

비란 사름물 因하야 뉘우고 얼굴란 막대를 써 扶持호노라(舟楫因人動形骸用扶持)
(杜初8 : 43)

③ 바탕(質)

文은 文彩오 質은 얼굴리라(金三2 : 16)
質은 꾸밈업슨 밋 얼굴리라(金三2 : 61)

④ 狀態

곧 鐘이 이 이 類의 소릿 얼굴리어늘(卽知鐘是此類聲之相狀)(圓 下二之一47)

이와 같이 語形 '얼굴'이 15세기에는 '形體, 몸' 등 有形的 의미뿐만 아니라 '質, 狀態' 등의 無形的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⁶⁾ 이러한 점은 17세기에도 계속된다. 17세기의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形體

여섯 날굽 둘에 니르면 얼굴이 이리(至六七月已成形)(杜要 上1)
스나히 겨집 얼굴이 이느니 낄운 태오(成男女形影謂之胎)(胎產8)
너름지이 호오매 짜히 얼굴을 아노라(爲農知地形)(杜重19 : 35)

② 몸

죽은이는 얼굴과 정신이 서러 떠나 얼굴은 짜히 들어(家諺5 : 22)

③ 狀態

이 병이 업슨 얼굴이니(是爲無病之狀)(馬諺 上39)

6) 金泰現(1989), "中世國語의 多義語 研究 : 고유어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01.

이상과 같이 17세기까지는 語形 '얼굴'이 '形體, 몸, 狀態' 등의 의미로 쓰였는 데 비해, 18세기에는 이 말이 '顔面'의 뜻으로도 쓰인 것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形體

히과 달과 별의 얼굴을 보아(見日月星辰之象)(十九1 : 7)
 얼굴 형 : 形(倭解 上19)

② 몸

그 얼굴을 그려 공양하고(畫其像供養)(種德 中33)
 얼굴이 아름다오니(美姿格)(種德 上22)
 점점 사람의 얼굴이 이느니라(稍作人形)(恩重4)(南高寺本)

③ 顔面

얼굴이 빛나고 말을 치레하느니로써(明義1 : 46)
 애 貴人을 얼굴 보기 어렵다(咳貴人難見而)(朴新1 : 36)
 빅성의 근심하는 얼굴을 생각하야(繪音 論京畿民人5)
 공이 그 얼굴이 낙은 듯하야(敬釋39)
 얼굴(容顔)(同文 上18)
 저 놈은 얼굴은 저리 모지러 뵈도(隣語8 : 16)

이와 같이 18세기에는 語形 '얼굴'이 '얼굴'로도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의미는 '形體, 몸' 등과 더불어 위의 예 ③에 보이듯이 '顔面'의 뜻으로도 많이 쓰였다. 반면에 前代에 보유하고 있었던 '狀態, 바탕' 등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이 말이 19세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① 顔面

제 손뼉닥으로 제 얼굴 쳐 두 불이 부어(竈君15)
 사람의 얼굴갸치 되엿거늘(如人面)(太上3 : 3)
 근심하는 빗치 얼굴의 가득한자라(塗憂容)(太上4 : 46)
 얼굴과 뺨의(面頰)(太上5 : 53)

② 形體

얼굴과 그림자 사이의(形影之間)(南宮5)

이와 같이 19세기에는 語形이 '얼굴'로 나타나는데 '顔面'과 '形體'의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나온 총독부편 <朝鮮語辭典>(1920)에는 語形이 '얼굴' 또는 '얼굴'로 쓰이면서 의미는 '顔面'으로만 나타난다.

얼굴 : (名) 顔面
얼굴 : (名) '얼굴'에 同じ.

지금까지 단어 '얼굴'에 대하여 살펴본 바를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얼굴(形體, 몸, 바탕, 狀態)(15세기) > 얼굴(形體, 몸, 狀態)(17세기) > 얼굴, 얼굴(形體, 몸, 顔面)(18세기) > 얼굴(顔面, 形體)(19세기) > 얼굴(顔面, 면목, 명예)(現)

2. 여위다

중세국어에 語形 '여위다'는 다음 예와 같이 '枯渴'과 '瘦瘠'의 의미로 쓰여 현대국어와는 다르다. 이 말이 현대국어에서는 '枯渴'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① 마르다(枯渴)

渴은 물 여월씨라(楞9 : 71)
여윈 못 가온디(月千28)
모시 다 여위며 남기 다 이올며(月釋1 : 48)

② 瘦瘠하다

술히 지도 여위도 아니흐니라(月釋1 : 26)
검고 여윈 거시(形黑瘦)(法2 : 120)

17세기 국어에서도 중세국어와 마찬가지로 語形 '여위다'가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 다음의 용례를 보자.

① 마르다(枯渴)

바다 여위다(海枯)(譯解7)

나문 글결톨 여윈 더 잇느니톨 救호물 期望호노니(餘波期救涸)(杜重3 : 21)

② 瘦瘠하다

여위어 것구러디리(瘦倒的)(朴諺 中14)

두 어버이를 일코 슬허 여위기를(喪兩親哀毀)(新續 孝6 : 24)

세흔 여위니(三箇瘦)(老諺 下9)

18세기에는 語形 '여위다'가 '枯渴'의 의미로 쓰인 것은 드물게 나타나고, '瘦瘠'의 의미로 쓰인 것이 대부분 나타난다. 이런 것으로 보아 이 말이 '枯渴'의 의미로는 별로 쓰이지 않고, 이 의미는 전부터 존재했던 語形 '막르다'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위다'의 語形은 다음 용례와 같이 18세기에 '여위다'로도 표기되어 나타난다.

① 枯渴

짜히 여외고 물은죽(土燒燥)(正俗31)(一蓑文庫本)

② 瘦瘠하다

여외다(瘦)(蒙解 上14)

여외고 늙은 者는(瘦老者)(無冤1 : 46)

여위다(瘦)(方言1 : 19)

오래 병허야 여위니(二倫6)(重刊本)

19세기 국어부터는 語形 '여위다'가 '瘦瘠'의 의미로만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말이 이 당시에 '枯渴'의 의미로 쓰인 것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語形 '여위다'는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여는 여위여 도치 아니타 허니(餘瘦不堪也)(太上5 : 51)

20세기 초에 나온 총독부편 <朝鮮語辭典>에도 이 말을 '瘦'의 뜻으로만 풀이해 놓고 있다.

여위다 : (活) 瘦す.

지금까지 기술한 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여위다(枯渴, 瘦瘠)(15세기) > 여위다, 여의다(瘦瘠, 枯渴?)(18세기) > 여위다(瘦瘠)(19세기)

VI. 結 論

이상과 같이 어휘 변천을 ① 語形이 소멸된 것(너름(짓다)). ② 語形이 分化된 것(바당, 섯다). ③ 語形이 變化된 것(스뭇다, 사오납다, 암굴다). ④ 語形이 維持된 것(얼굴, 여위다) 등으로 나누어 이들 단어의 語形이나 의미의 변천과정을 문헌을 근거로 하여 시기별로 고찰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너름(짓다)(語形 消滅型)

‘너름’은 중세국어에서 ‘農事’ 또는 ‘農産物’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동사 ‘짓다’나 ‘드외다’와 결합하여 합성어 ‘너름짓다, 너름드외다’가 형성되어 쓰였다. 그런데 이 말은 19세기에는 한자어로 교체되고 사라졌다.

너름(짓다)(15세기) > 農事(짓다)(19세기)

(2) 바당(語形 分化型)

이 말은 중세국어에서 ‘① 手掌, 足掌, ② 바닥, ③ 場所, 자리’ 등의 의미로 쓰였으나, 이 중 ①②의 의미는 19세기부터는 語形이 ‘바닥’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③의 의미는 18세기부터는 語形이 ‘마당’으로 쓰이고 있어 語形이 분화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17세기에는 語形 ‘바당’이 ‘타고난 體質’의 의미로 쓰였었는데 이 語形은 19세기에 ‘바탕’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바당(手掌, 足掌, 底面, 場所, 자리)(15세기)
 - > 바닥(手掌, 足掌, 底面)(17세기) > 바닥(19세기)
 - > " (타고난 體質)(17세기) > 바탕(質)(19세기)
- 바탕(場所)(15,6세기) > 마당(場)(18세기)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4)

(3) 싫다(語形 分化型)

이 말은 중세국어에 ‘苦痛, 哀痛, 惜’의 의미로 쓰였으나 후에 語形이 분화하여 ‘싫다, 서럽다, 서러워하다’ 등의 語形으로 쓰인다. 그러나 이들의 의미 차이는 미미하다.

○ 싫다(苦痛, 哀痛, 惜)(15세기)

> ① 싫다(惜)(17세기) > 설따(哀痛)(19세기) > 싫다(哀痛)(1938년)
> 서럽다(哀痛)(1938년)

> ② 설워하다(苦痛, 哀痛)(17세기) > 서러하다(哀痛)(19세기) > 서러하다(1938년) > 서러워하다(哀痛)(現)

(4) 스똥다(語形 變化型)

이 말은 중세국어에 많은 의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후에 語形도 변하고 의미도 단순화되었다.

스똥다(通하다, 뵈치다, 到達하다, 通達하다, 새다)(15세기) > 사똥다(18세기 말) > 사똥치다, 사모치다(達)(19세기) > 사무치다(達, 通)(1938) > 사무치다(속 깊이 또는 끝까지 미치어 통하다)(現)

(5) 시오납다(語形 變化型)

이 말은 중세국어에 매우 많은 의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9세기 말에 음절도 단축되고 의미도 ‘猛’으로만 쓰이게 되었다.

시오납다(劣等하다, 弱하다, 거칠다, 類弊하다, 나쁘다, 崎嶇하다, 어리석다, 拙하다, 薄하다, 疏漏하다, 凡하다)(중세국어) > 사오납다(나쁘다, 사납다, 粗惡하다, 瘠薄하다, 衰하다, 비바람이 심하다)(18세기) > 사(스)오납다(猛, 惡)(19세기) > 사납다(猛)(19세기 말)

(6) 암글다(語形 變化型)

이 말은 중세국어에 ‘癒合하다, 껌매지다, 온전하다’ 등으로 쓰여 현대국어 ‘아물다’와는 의미도 달랐고 語形도 달랐다.

암글다, 암글다(癒合하다, 껌매지다, 온전하다)(15세기) > 암글다, 암물다, 아물다(癒合하다, 껌매지다, 온전하다)(17세기) > 암글다, 아물다(癒合하다)(18세기) > 암글다, 아물다(癒合하다)(1938년) > 아물다(癒合하다)(現)

(7) 얼굴(語形 維持型)

이 말은 중세국어에도 현대국어와 語形은 같았으나, 중세국어에는 의미가 더 廣義로 쓰였다.

얼굴(形體, 몸, 바탕, 狀態)(15세기) > 얼굴(形體, 몸, 狀態)(17세기) > 얼굴, 얼굴(形體, 몸, 顔面)(18세기) > 얼굴(顔面, 形體)(19세기) > 얼굴(顔面, 면목, 명예)(現)

(8) 여위다(語形 維持型)

이 말도 중세국어에 현대국어와 語形은 같았으나, 의미는 현대국어와 달리 '枯渴'과 '瘦瘠'으로 쓰였다.

여위다(枯渴, 瘦瘠)(15세기) > 여위다, 여외다(瘦瘠, 枯渴?)(18세기) > 여위다(瘦瘠)(19세기)

參考文獻

姜成一(1975), 『國語學論考』, 螢雪出版社.

金泰琨(1989), “中世國語의 多義語 研究 : 고유어를 중심으로,” 中央大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全在昊(1987), 『國語語彙史 研究』, 경북대 출판부.

S. Ullmann著・南星祐譯(1981), 『意味論의 原理』, 탑출판사.

『古語辭典』(1971), 南廣祐, 補訂版, 一潮閣.

『李朝語辭典』(1920), 劉昌惇, 연세대 출판부.

『朝鮮語辭典』(1920), 총독부 편.

『朝鮮語辭典』(1938), 文世榮.

『새 우리말 큰사전』(1988), 신기철・신용철, 삼성이デア.